

국 어

1. 다음 중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 ① 비행기, 새해, 밑바닥, 짓밟다, 겁나다, 낯설다
- ② 새해, 막내둥이, 돌부처, 알뜰다, 깔보다, 본받다
- ③ 새해, 늙은이, 어깨동무, 정들다, 앞서다, 손쉽다
- ④ 비행기, 개살구, 산들바람, 겁나다, 낯설다, 그만두다
- ⑤ 늙은이, 막내둥이, 척척박사, 본받다, 앞서다, 배부르다

2.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을 때에는 넘치지 않도록 골막하게 담았다.
- ② 그는 주춤하더니 다시 돌아누워 시름없는 투로 말했다.
- ③ 가만히 있는 아이를 괜히 뜯적거리 울린다.
- ④ 마주 보이는 담배 가게 옆맹이의 사진관을 본다.
- ⑤ 첫인상부터 늪늪하고 인색한 샌님티가 난다.

3. <보기>의 외래어 표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게티스버그(Gettysburg)
- ㄴ. 알레르기(Allergie)
- ㄷ. 컬렉션(collection)
- ㄹ. 미네랄(mineral)
- ㅁ. 아쿠아마린(aquamarine)

- ① ㄱ, ㄴ, ㅁ
-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4. 다음 중 문장의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 지금의 자본주의가 자본과 시장의 폐해를 제대로 규제하고 제어하지 못한 정치 실패이자 민주주의 실패의 결과인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 ② 1980년대 초부터 지난 30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자본주의를 추구한 결과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부정적 결과들이 구조화되었다.
- ③ 단순하게는 혼자서 삶을 꾸려 나갈 수 없다는 데서, 나아가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가지 있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데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진술의 원인 혹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 ④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분만을 전후한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혜택을 집중시키는데, 가족과 모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건강증진보다는 건강한 신생아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지성적 연구는 예술과 과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보다 오히려 양자 간의 유사점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예술이나 과학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칭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5. 작품 창작 연대가 앞선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아아, 날이 저문다. 서편(西便) 하늘에, 외로운 강물 우에, 스러져 가는 분홍빛 놀……. 아아 해가 저물면 해가 저물면, 날마다 살구나무 그늘에 혼자 우는 밤이 또 오것만는, 오늘은 사월(四月)이라 파일날, 큰길을 물밀어 가는 사람 소리는 듯기만 하여도 흥성시러운 거슬 왜 나만 혼자 가슴에 눈물을 참을 수 업는고?
- ㄴ. 잘 있거라, 짙았던 밤들아 / 창밖을 떠돌던 겨울안개들아 /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간헐네
- ㄷ.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 철업든 내 귀로 드렸노라 / 만수산(萬壽山)을 나서서 / 옛날에 갈라선 그 내 님도 / 오늘날 뵈을 수 있엇스면 / 나는 세상 모르고 사랏노라 / 고락(苦樂)에 겨운 입술로는 / 갇튼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 말하게도 지금은 되엇건만 / 오히려 세상 모르고 사랏스면!
- ㄹ.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 다시 누웠다 // 풀이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 ㅁ. 낙엽은 풀—란드 망명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문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① ㄱ—ㄴ—ㄷ—ㄹ—ㅁ
- ② ㄱ—ㄷ—ㅁ—ㄴ—ㄹ
- ③ ㄱ—ㄷ—ㅁ—ㄹ—ㄴ
- ④ ㄷ—ㄱ—ㄴ—ㅁ—ㄹ
- ⑤ ㄷ—ㄱ—ㅁ—ㄹ—ㄴ

6. 다음 글에서 비판하고 있는 핵심 내용으로 맞는 것은?

한 경향이나 한 시대와 같은 몇 개 되지 않은, 그것도 대부분 직관적으로 파악된 특징으로부터 일반적인 종합 개념을 만들어내서는, 이러한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개별 현상에 접근하여 설득력 있는 종합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유행이 되다시피 했다. 필자의 '소설의 이론'의 방법론도 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현실을 대하는 주인공의 유형이 너무 협소한가 아니면 너무 넓은가 하는 양자택일적인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돈키호테'의 경우 이 한 편의 소설이 갖는 역사적 미학적 풍부함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다른 작가들, 예컨대 발자크나 퐁토피탄을 두고 볼 때, 이러한 방법은 이들에게 일종의 개념이라는 외투를 억지로 입힘으로써 큰 문제가 되었다.

- ① 귀납적 사고의 위험성
- ② 다른 이론을 배척하는 태도
- ③ 개념의 왜곡
- ④ 이론의 독재
- ⑤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비난

7. 다음 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ㄱ. 생태 문제는 본질적으로 도덕성의 문제다.
 ㄴ. 그래야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바람직하다.
 ㄷ. 생태 위기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이기 때문이다.
 ㄹ. 인간은 삶의 터전이자 배경으로 삼고 있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ㅁ. 그렇다면 자연과의 바람직한 관계 회복 역시 인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과제다.

- ① ㄱ-ㄷ-ㄹ-ㄴ-ㄱ
- ② ㄱ-ㄷ-ㄴ-ㄹ-ㄴ
- ③ ㄱ-ㄹ-ㄴ-ㄷ-ㄷ
- ④ ㄷ-ㄴ-ㄴ-ㄱ-ㄹ
- ⑤ ㄷ-ㄴ-ㄱ-ㄴ-ㄹ

8. 다음 <보기> 중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된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 ㄴ. 성조가 사라지고 방점의 기능이 소멸되었다.
- ㄷ. 아래아(·)의 음가가 완전히 소실되었다.
- ㄹ. 중세 특유의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등이 있었다.
- ㅁ.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ㅁ

9. 다음 글에서 말하는 '발전 기술'의 효과를 전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發電)이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 과정이나 구동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 연료전지 발전 외에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 기술이다.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 ② 에너지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 ③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④ 실용화 단계에 이르면 보다 안전한 삶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⑤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10.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어의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황제를 알현(謁見)했다.
- ② 역사상 여러 나라가 내홍(內訌)으로 패망하였다.
- ③ 그 노래는 누가 작사(詐詞)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 ④ 이번 사건은 과거의 잘못을 상쇄(相殺)한 셈이었다.
- ⑤ 나도 무론(毋論) 힘쓰겠지만, 너도 단단히 준비해라.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은 장(莊), 이름은 주(周)다. 언제 태어나 언제 죽었는지 분명치 않다.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鄉)의 이상향을 꿈꾸었다. 현실이 지옥이었기 때문이다. 사형당해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서로 베개를 베고 누워 있고, 차꼬를 차고 칼을 쓴 죄수들이 서로 밀칠 정도로 바글거리고, ㉠형륙을 당해 손발 잘린 자들이 서로 마주 볼 정도로 많았다. 그런데도 유가와 묵가의 선생이란 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돌아다니며 성(聖)과 지(知), 인(仁)과 의(義)를 잘난 척 떠들어대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과 지는 차꼬나 목에 씌우는 칼의 썰기와 다른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내세우는 인과 의는 죄수의 형구를 채우는 자물쇠와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세상이 평화롭게 다스려지려면 먼저 성지(聖知)와 인의(仁義)부터 끊어버려야 한다고.

(나) 온갖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그의 이야기는 시비와 차별의 경계를 가차 없이 부수어버린다. 천자인 요임금과 은자인 허유의 지위가 뒤집히고 성 밖에 사는 천민 남쪽자가 성안에 사는 귀족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소 잡는 백정의 신들린 칼춤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삶을 구원하는 이치를 찾아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하다고 여겨 절름발이, 언청이, 곱사등이, 사지가 ㉢지리멸렬한 기형불구라고 칭하는 인간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입을 빌려 지고(至高)의 도를 이야기했다. 그가 바란 이상향은 부유하고 귀한 자가 가난하고 천한 자의 삶을 염신여기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이다.

(다) 노나라의 애태타는 절름발이에다 곱사등이인 장애인으로,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는 추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지만 노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위나라의 인기지리무순과 제나라의 웅양대영도 총체적인 장애를 가진 기형불구의 인간이었지만 한 나라의 임금이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한다. 그들에게 부와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름다운 덕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덕이 충만해 있으면 외형의 ㉣결핍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오히려 외형의 결핍에 가려 내면의 아름다운 덕을 보지 못했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었다.

(라) 사람만이 아니다.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란 봉새의 비상을 높이 사지만 매미나 메추라기의 날갯짓을 낮추어보지 않았고 황하의 신 하백(河伯)과 북해의 신 약(若)을 한자리에 불러내 우주의 광활함과 천지의 장대함을 노래했다. 까치와 오동나무가 도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가 하면 수십 만 년을 사는 거북이와 수백 만 년을 사는 상고시대의 대춘나무가 등장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덧없고 짧은지 깨우쳐준다.

(마) 꿈 이야기를 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 길흉을 점치지만 그 자체가 꿈이었다는 이야기다. 그저 꿈을 현실이라 착각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꿈속의 꿈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꿈인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죽음이라는 깨어남을 통해 깨어나야 할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11. 다음 중 각 단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가): 장주는 유가와 묵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 ② (나): 장주는 당대의 고정 관념을 허무는 수단으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였다.
- ③ (다): 장주는 인간이 지닌 외형적 조건보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중시했다.
- ④ (라): 장주는 시공 차원의 광활함과 무한함을 그것의 협소함과 유한함보다 우위에 두었다.
- ⑤ (마): 장주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과 관련된 경계조차 부정하였다.

12. 밑줄 친 ㉠~㉣의 한자 표기 중 옳은 것은?

㉠ ㉡ ㉢ ㉣

- ① 刑戮-隱喻-支離滅裂-缺乏
- ② 刑戮-隱維-支離滅裂-缺乏
- ③ 刑戮-隱維-支離滅劣-扶乏
- ④ 刑戮-隱喻-支離滅劣-缺乏
- ⑤ 刑戮-隱喻-支離滅裂-扶乏

13. <보기>의 밑줄 친 ㉠~㉣ 중 표준 발음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이 문제는 입주민들과의 ㉠협의[협비]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 외국인들은 한글의 복잡한 ㉡띄어쓰기[띄어쓰기]를 어려워한다.
- 관객들이 ㉢썰물[썰 : 물]처럼 빠져나갔다.
-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라는 ㉣우리의[우리에] 소망이 이루어질까?
- ㉤반신반의[반 : 신 바 : 니] 하는 분위기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4. 다음 <보기> 중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얼룩배기
 ㄴ. 판때기
 ㄷ. 나이빠기
 ㄹ. 이맛배기
 ㅁ. 거적배기
 ㅂ. 상관대기

- ① ㄱ, ㄷ, ㅁ
 ② ㄱ, ㄹ,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ㅁ, ㅂ

15. 다음 설명을 참고할 때, 문장 부사가 실현된 것은?

부사는 한 성분을 수식하느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 ① 개나리가 활짝 피었다.
 ② 집 바로 뒤에 공원이 있다.
 ③ 강아지가 사료를 안 먹는다.
 ④ 일 끝나면 이리 와.
 ⑤ 의외로 철수가 빨리 왔다.

16. 다음 중 밑줄 친 ‘의’의 쓰임이 다른 것은?

- ①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②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
 ③ 생존권의 박상됨이 무릇 기하ㅣ며
 ④ 민족의 갈 길은 정해졌다.
 ⑤ 일본의 소의함을 죄하러 안이하노라.

17. 다음과 같은 사전의 풀이를 참고하여 작성한 문장 가운데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듯이: 의존 명사. (어미 ‘-은’, ‘-는’, ‘-을’ 뒤에 쓰여) 짐작이나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듯: 의존 명사. ①‘듯이’의 준말. ②(‘-은 듯 만 듯’, ‘-는 듯 마는 듯’, ‘-을 듯 말 듯’ 구성으로 쓰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 같기도 함을 나타내는 말.
- -듯이: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듯: 어미. ‘-듯이’의 준말.
- 듯하다: 보조 형용사. (동사나 형용사, 또는 ‘이다’의 관형사형 뒤에 쓰여) 앞말이 뜻하는 사건이나 상태 따위를 짐작하거나 추측함을 나타내는 말.

- ① 예전에는 여기가 황량했던 듯하다.
 ② 그의 행동을 보아하니 곧 떠날 듯이 보인다.
 ③ 마치 구름을 걷는 듯 도무지 생시가 아닌 것만 같았다.
 ④ 거대한 파도가 일 듯이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가 일었다.
 ⑤ 물이 깊을수록 조용하듯 사람도 아는 게 많을수록 조용하다.

18. <보기>의 밑줄 친 한자어의 한글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은 『墨子』를 읽습니다. 反戰 思想과 함께 墨子 思想의 ①精髓라고 할 수 있는 ②兼愛 思想까지 읽기로 하였습니다. ③‘無鑑於水’는 널리 알려진 글귀는 아닙니다. 내가 많이紹介하는 편입니다. 물에(於水) 비추어 보지 마라(無鑑)는 뜻입니다. 물은 옛날에 거울이었습니다. ④銅鏡이 나오기 전에는 물을 거울로 삼았습니다. 물에 비추어 보면 얼굴만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鑑於人’, 사람에 비추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거울에 비추어 보면 ⑤外貌만 보게 되지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보면 자기의 人間的 品性이 드러납니다. 人文學的인 메시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共感할 수 있는 金言입니다.

- ① ㉠ 정수
 ② ㉡ 경애
 ③ ㉢ 무감어수
 ④ ㉣ 동경
 ⑤ ㉤ 외모

1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뎠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① 시각적으로 분연되지 않은 단연시이지만 서술 구조상 2행이 한 연으로 묶여 전체적으로 2행 6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 ② 짧고 긴 호흡의 반복적 교체로 음악성을 구현한다.
- ③ 가시적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서 이에 대한 시적 자아의 정서상 변화를 보여준다.
- ④ 3, 4, 5, 6행은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묶인다.
- ⑤ 크게 모란이 피는 상황과 모란이 진 상황을 보여준다.

20. 다음 글의 요지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은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어떤 사실을 사진 없이 글로만 전할 때와 사진을 곁들여 전하는 경우에 독자에 대한 기사의 설득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분명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은 대상을 찍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알려 주지 않는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진이 있게 됐는지, 그 사진 속에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분명히 한 장의 사진에는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음에도 그것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서술성의 부족으로 인해 사진은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사기꾼들이 권력자나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 ①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강화시켜 주며 보도 대상의 이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② 사진은 사실성의 강화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서술성의 부족이라는 단점도 지닌다.
- ③ 사진은 신문 기사의 사실성을 더해 주는 보조 수단으로서 항상 좋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 ④ 사진은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서술성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속이는 증거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⑤ 사진은 서술성이 부족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21. 다음 글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것은?

사람과 만물은 한가지로 천지의 큰 조화 사이에서 생겨났으니, 백성은 나의 형제요 만물은 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으뜸이 되고 만물은 그 다음이 된다. 그 만물을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아주 가는 그물을 웅덩이나 못에 넣지 아니하며, 도끼와 낫질을 하되 산림의 때를 가려서 하며, 물고기가 한 자가 되지 않으면 저자에서 팔지 못하는 것이며, 새끼와 알을 취하지 아니하며, 그 물을 얼어놓고 새와 짐승의 자유를 빌며, 낚시질은 하되 그물 버리를 이어서 고기를 잡지는 않는 것이며, 활로 쏘기는 하나 잡자는 것을 쏘지는 않는 것이다.

- ① 차별(差別)의 정서
- ② 생명(生命)의 조화
- ③ 인애(仁愛)의 마음
- ④ 공감(共感)의 태도
- ⑤ 융화(融和)의 양태

22.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님이 오마 흥 길노 재녀밤을 일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地方) 우회 치도라 안자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노자 가노자 건넌 산(山) 바라보니 거머 횃들 서 잇거늘 저야 님이로다.
보선 버서 품에 품고 신 버서 손에 쥐고 껌뽕뽕의 님비곰의 천방지방 지방천방 존 되 마를 되 기 회집 말고 워렁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흥려 하고 껌눈을 흘긔 보니 상년(上年) 칠월(七月) 사흔날 기 자별긴 주추리 삼대 사 드립도 날 소겨다.
모쳐라 밤일식만정 행혀 낮이런들 우일 번히 페라

- ① 조선 후기에 등장한 문학 형태이다.
- ② 평민 관객들이 주로 노래한 것이다.
- ③ 해학을 통해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임에 대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3.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좀 더 넓은 堅持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 ② 개개의 인간이 모여 하나의 集團을 이룬다.
- ③ 혈연 중심의 가족 집단을 넘어 사회를 形成하게 된다.
- ④ 인간에게 사회는 實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 ⑤ 그러한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要素 혹은 요인은 무엇일까?

24. 다음 (가)~(마)의 글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충실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결론도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과학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얻어 낸 결론이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된 실험을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상반된 결론들이 나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분야의 특성상 엄밀하게 과학 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오류가 자주 빚어지는 것은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한계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의해서 가려내야 한다. 어떤 결론이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그 결론이 유도되는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이라 함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과학을 과정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 최근에는 과학이라는 말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정확하다’, ‘완벽하다’ 또는 ‘좋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혼란은 오히려 과학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게 만들었고, 과학 방법에 충실한 과학을 그렇지 못한 유사 과학과 구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흔히들 ‘과학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내용이 ‘진실이나, 아니냐’에 따라 구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과학 방법이다. 과학 방법은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귀납법은 실험, 관찰, 통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 원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다. 반면에 연역법은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공리에서부터 출발하여 논리적 추론에 의해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마) 과학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하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이다. 과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에 그 결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얻은 결론이므로 인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진 결론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① (다)-(나)-(라)-(마)-(가)
 ② (다)-(나)-(마)-(라)-(가)
 ③ (다)-(라)-(나)-(가)-(마)
 ④ (마)-(가)-(라)-(다)-(나)
 ⑤ (마)-(라)-(가)-(다)-(나)

25. 다음 글의 밑줄 친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과연 위대한 건 추사의 글씨다. 짙으며 나무 옷감 같은 생활 필수품 값이 올라가면 소위 서화니 골동이니 하는 사치품 값은 여지없이 떨어지는 법인데, 요새같이 ㉠책사에까지 고객이 딱 끊어졌다는 세월에도 추사 글씨의 값만은 한 없이 올라간다.

추사 글씨는 확실히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필 추사의 글씨가 제가(諸家)의 법을 모아 따로이 한 경지를 갖추어서 우는 듯 웃는 듯 춤추는 듯 성낸 듯 세찬 듯 부드러운 듯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조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아서 맛이 아니라 시인의 방에 걸면 그의 ㉡시경이 높아 보이고, 화가의 방에 걸면 그가 고고한 화가 같고, 문학자, 철학자, 과학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갖다 거는 대로 제법 그 방 주인이 그럴듯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상점에 걸면 그 상인이 청고한 선비 같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품들 까지도 돈 안 받고 거저 줄 것들만 같아 보인다. 근년래 일약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분들 중에도 얼굴이 탁 띄고 짐작은 것을 보면 필시 그들의 사랑에는 추사의 ㉢진적이 구석구석에 호화로운 장배로 붙어 있을 것이리라.

㉠ ㉡ ㉢

- ① 冊絲－詩經－眞籍
 ② 冊肆－詩境－眞跡
 ③ 冊肆－詩境－眞寂
 ④ 冊絲－詩經－眞迹
 ⑤ 冊使－詩境－眞蹟